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7호 【루계 제24375호】 주체102(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쿠웨이트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쿠웨이트 알라미아건설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총사장 파트히 하킴이 13일 쿠웨이트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총사장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 필승의 의지로 세계면전에서 미제를 쥐락펴락하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깊이 매혹되여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부강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머니날을 맞는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일터에서 녀성근로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멋쟁이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늘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보내주고있는 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대공보》, 인터네트홈페지 인민망,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위대한 나라

외국인들이 강조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표시되였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으로 된다.

뛰여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그이의 위인상은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각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 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은 승승장구할것이다.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전 수상 가지 자파르 아흐메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인민의 령도자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그이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며 일심단결의 중심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진두에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기세는 충천하다.

라오스건국전선 중앙위원회대표단 단장 판두앙찟 웡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몰라보게 변모된 평양의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동하는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에서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은 더욱 위대한 나라로 빛나고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에 특별전시상 수여

제9차 중국(베이징)국제정원박람회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제9차 중국(베이징)국제정원박람회 특별전시상이 수여되였다.

5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원림도시,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수십개 나라와 중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이 참가하였으며 610여만명이 박람회장을 참관하였다.

시상식이 19일 제9차 중국(베이징)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람중심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수여된 특별전시상장이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에 전달되였다.

박람회조직위원회 전람중심 부주임 화위군은 조선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개막 첫날부터 시종일관 박람회의 품위를 높여준데 대하여 평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박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것은 조선을 비롯한 모든 참가측들의 적극적인 방조와 지지가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서 조선의 명화들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특별전시상을 수여받은데 대해 다시한번 축하한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부문에서 올해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

함경남도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함경남도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허천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에서 매달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를 안고 도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전력공업성의 방조밑에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은 전력증산투쟁에로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저수지들에 물을 더 많이 잡고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허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안고 깊은 산중의 발전소들에서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전력생산에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그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발전기들에 대한 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이달 전력생산을 전달에 비하여 더욱 늘이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2호발전소와 4호발전소에서는 발전기들에 대한 보수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언제관리직장과 언제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도중취수구관리와 언제보수를 잘하여 전력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일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1호발전소와 2호, 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기들과 차단기, 변압기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하고 그 정상관리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부전강발전소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곳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소, 3호발전소, 4호발전소의 중요발전기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깐지게 하고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가을철조건에서 더 많은 물을 저수지에 채워넣어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도중취수구관리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수풍발전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전력증산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10월말까지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전력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서운기, 강원식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상류저수지와 기상관측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설비들과 변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에 힘을 넣도록 하면서 언제구조물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고 전력생산에 리용되게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근무성원들이 순회감시를 책임적으로 하여 불량개소들이 나타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발전소에서는 기술혁신이자 전력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효률이 높은 새 형의 수차를 받아들이고 발전설비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발전기의 려자장치를 수자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고있다.

전력증산의 불길은 3중3대혁명붉은기 1발전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장 최정선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 전력생산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2중3대혁명붉은기 2발전직장의 명창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기대보수를 10일동안에 끝내고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수력구조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10월 20일까지 300여㎥의 언제대면타입을 진행함으로써 년간 구조물보수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언제시추주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여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올해 전력생산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기보수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면서 살림집과 남새온실, 버섯기지건설을 적극 내밀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발전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제대군인탄부살림집건설 마감단계

함경북도에서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석성지구에 일떠서는 수백동의 제대군인탄부살림집건설이 지금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을 끝내고 입사준비에 힘을 넣고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 현대적인 새 살림집구획이 자태를 완전히 드러내고있다.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방대한 기초공사와 골조조립공사를 끝내고 층막치기공사를 적극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는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도시건설과 농촌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당에서는 함경북도에서 석성탄광의 제대군인탄부들에게 새 살림집들을 훌륭하게 지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과 공장, 기업소책임일군협의회를 열고 제대군인탄부살림집건설을 올해안으로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에서는 실력있고 전개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시, 군과 공장, 기업소, 광산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지난 9월 1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살림집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김춘식, 강명훈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10여차례의 협의회를 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단위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온성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수십동의 살림집건설에서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해나가고있다.

군책임일군들부터가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며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살림집골조조립과 지붕공사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온성군에서는 타일과 벽지붙이기, 비닐레자깔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살림집들에 놓을 옷장과 이불장을 비롯한 가구들을 훌륭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청진시에서는 건설일정에 따르는 자재보장을 앞세우며 맡겨진 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쌍룡광산의 건설자들은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일본새를 따라배워 골조조립과 지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랑군 책임일군들은 군의 온실건설과 살림집건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로 바쁜 속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군이 맡은 30여동의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내부미장과 타일붙이기작업에 들어갔다.

무산군과 경성군, 유선탄광과 온성탄광을 비롯한 시, 군과 단위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길주군을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면서 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전반적인 살림집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서는데 맞게 마감건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보장해주며 매 세대들에 좋은 가구들을 넣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백동의 제대군인탄부살림집이 완공될 날은 멀지 않았다.

특파기자 리은남

큰 규모의 남새온실 건설

단천제련소에서

단천제련소에 큰 규모의 남새온실이 새로 일떠섰다.

남새온실은 연건평이 2만여㎡에 달하며 온실관리에 필요한 열보장시설, 상하수도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제련소에서 새로 건설한 온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실리가 있다. 배소직장 페열보이라에서 되돌이하여나오는 응축수로 남새온실의 온수를 보장하게 되여있어 온실관리에 필요한 열을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하였다. 8개의 호동으로 되여있는 온실에서는 사계절 갖가지 잎남새와 열매남새, 버섯을 재배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박막온실을 많이 건설하고 온실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박막온실을 많이 건설하여 남새생산을 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온실건설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었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실지 그 덕을 볼수 있게 남새생산능력을 크게 정하고 그에 맞는 적지를 선정한데 기초하여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과 련계를 맺고 온실설계를 짧은 시일안에 과학적으로 진행하였다.

제련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꾸리고 온실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시공조직을 짜고들었다.

제련소의 종업원들이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온실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동력직장, 전해직장의 로동계급이 기초공사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제힘으로 윤택한 생활을 꾸려간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매일과 같이 교대를 인계하고 곧바로 건설현장으로 달려나온 이들은 지대정리와 기초공사를 10여일만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이 궁륭식박막온실건설에 필요한 장치제작을 위해 현장에 여러가지 지구장비들을 갖추어놓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안고 온실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책임일군들이 현장에서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로력과 자재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벽체축조와 보조립을 동시에 내밀도록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건설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온실건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시공지도를 적극 따라세웠다.

온실의 기술적요구에 맞게 벽체를 2중으로 쌓고 보온재료를 넣어 그 어떤 추위에도 온실온도를 유지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

온실건설이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온실바닥에 깔 질좋은 부식토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해나갔다.

온실남새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물길파기와 양수장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제련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착공한지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많은 량의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파기와 지대정리를 한데 이어 8동의 궁륭식박막온실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얼마전에 이곳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땀으로 일떠세운 남새온실에 첫 남새파종을 하였다.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으로 전변된 유색금속생산기지에 큰 규모의 남새온실이 새로 일떠섰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세포등판건설 대외건설지도국돌격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력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선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이고 정치방식이였으며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군술은 대원수님들의 천품이였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업적으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왔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의 계승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 있다.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혁명의 만년재보로,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것이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불리울만큼 세계도처에서 혁명과 반혁명, 자주력량과 지배세력간의 대결전이 격렬하게 벌어진 세기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지배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사이의 각축전이 격화됨에 따라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폭발하였고 세계적범위에서 각이한 형태와 류형의 크고작은 전쟁들이 수많이 일어났다. 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뛰여난 전법으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라와 민족, 인류앞에 공적을 세운 명장들과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웅근한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은 없다. 20세기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희세의 정치원로로서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린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세기였다.

력사가 찬탄하는 백승의 지략과 용맹, 인덕은 걸출한 군사의 영재만이 지닐수 있는 기질이며 품격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선군혁명을 개척하시고 선군정치의 새력사를 펼치시여 조국과 민족, 인류의 운명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그 어느 위인도 당대에 겪어보지 못한 유격전과 현대전, 총포성없는 치렬한 반제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사적업적은 전무후무한것이다. 장구한 력사의 그 나날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사상과 령도는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선이였으며 대원수님들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은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근본원천이였다.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조선이라는 동방의 사회주의나라가 자기보다 500배나 더 강한 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초강국 미국에 맞서 기상천외한 전법으로 미국을 단숨에 굴복시키고 세계질서를 바꿔놓았다. 이런 세계사적인 변혁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다.》라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업적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귀중한 유산이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 만년재보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을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시다.

적과의 싸움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군사적지략의 대결이다. 나라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옳게 동원리용하지 못하거나 적들을 전략전술적으로 압도하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전쟁의 상황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조성된 정세에 맞게 림기응변하며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게 자체의 실정과 전쟁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전법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

항일대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시면서 몸소 창조하신 소부대와 대부대의 령활한 배합작전과 매복전, 습격전, 동성서격전술, 망원전술, 일행천리전술을 비롯한 전략전술들은 일제를 전멸시킨 우리 식의 우월한 전법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작전적방침들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갱도전, 배후교란전, 습격전과 공군 및 해상전법들의 위력앞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였다. 언제나 주체적관점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과 전술을 싸움마다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이룩한 승리마다에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조성된 사태의 본질과 그 발전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며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군사적예지가 비껴있다. 지구가 깨여진대도 제국주의자들과는 자그마한 타협도 양보도 모르는 강철의 령장의 신념과 담력,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수로 적들을 무릎꿇게 하는 천출명장의 령활무쌍한 지략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미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군대와 인민만이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실증하였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으뜸의 탁월한 군사전략가》, 《천하제일장군》으로 끝없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령장의 담대한 기상과 철의 의지는 그 어떤 강적도 무릎을 꿇게 하는 무적필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반제대결전에서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적들을 제압하시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신 무비의 담력가, 배짱가이시였다.

일제의 100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항일혁명투쟁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수많은 혁명전설들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린 통쾌한 이야기들에는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령장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기상과 드센 배짱으로 미제의 악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격파하시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여오시였다. 1960년대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1970년대의《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과 위협공갈이 극도로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을 때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징벌로 적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신분이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십년간에 걸치는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칠수 있은것은 천재적인 정치가, 군사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담력과 의지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20세기를 반제투쟁의 승리의 년대기로 수놓아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21세기에도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끝없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비범하고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신 탁월한 군사가이시다.

령장의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지휘통솔력은 혁명전쟁에서나 총포성없는 반제대결전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찍부터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혁명적령군술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령군술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혁명적령도예술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군인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는 주체의 령군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와 인민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믿음과 사랑의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군민이 굳게 뭉친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대원들과 한홉의 미시가루도 나누시고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감동깊은 이야기, 가렬한 전화의 나날 인민군군인들에게 더운밥과 국을 먹이도록 하신 전설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여왔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풍랑사나운 바다길과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인민군군인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나고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뛰여난 군사적지략,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령군술로 반만년민족사와 인류자주위업수행사에 영원불멸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반제반미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을 영원히 선군의 강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적의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위력을 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은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력떨치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강력한 총대우에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된 혁명의 원리이며 법칙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백승의 혁명강군으로 위용떨쳐왔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는데서 근본열쇠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는 독창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인민군대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시고 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실 때마다 그들의 무기, 장구류로부터 군무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군군인들에게 백승의 지략과 용맹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주체의 군건설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정치지론은 주체의 사상론이였고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총대는 혁명사상이 결합된 강위력한 총대였다. 인민군대가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이 확고히 서고 총폭탄정신이 꽉 차넘치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관병일치, 군정배합이 철저히 확립된 혁명적동지애의 강군으로 자랑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군건설령도의 결정체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전략전술적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가 더욱 훌륭히 갖추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합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는 해군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고있다. 이런 불패의 혁명강군이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서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업적은 자립적국방공업을 토대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게 하는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군사와 국방공업을 앞세우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선결조건이며 조국과 민족수호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국방공업을 중시하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한때 제국주의자들앞에 겁을 먹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땅크를 마사 뜨락또르를 만들고 대포를 녹여 보습을 벼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에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총 한자루라도 더 생산하도록 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의 국방력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우리의 자립적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사실 우리 나라와 같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가증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압박속에서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실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국방공업의 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국방공업은 마음만 먹으면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자립적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광장을 뒤흔들며 힘차게 나아간 무쇠철갑대오의 위용은 우리 국방공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군민대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우리 조국의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백승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우리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처럼 그 중심의 확고성에 있어서나 사상정신적바탕과 목적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고 강위력한 단결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우리 조국의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력사,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는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천만군민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룬 진정한 동지적단결이며 평범한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생사를 같이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령도밑에 《인민》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더불어 장장 80여성상 언제나 인민과 함께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왔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도 하나였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산악같이 떨쳐일어나는 투쟁기풍도 한본새였다. 인민군대에서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투쟁정신이 창조되면 전민이 따라배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군인기질, 군인본때가 높이 발휘되면 그것이 전사회적인 풍모로 되고있는것이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가장 공고한 단결,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군민대단결을 확고히 이룩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자부할수 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시원이 열리고 전화의 포화속에서 공고화되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진 우리의 군민대단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의 혁명진지의 전방과 종심에는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틀어잡은 군인들과 영웅적인민이 성새, 방패를 이루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면 한전호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끝까지 수호해나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온 사회에 원군, 원민기풍이 꽉 차넘치고있고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고있는 우리 조국땅우에서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날은 멀지 않았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선군조선의것이다.

*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최대의 업적은 선군혁명령도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는 현대정치가가 지녀야 할 위인적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정치군사적진지는 철옹성으로 더욱 굳게 다져지고 대고조전구마다에서는 선군혁명의 우람찬 진군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끝까지 완성하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비범한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정광복, 김성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바이루트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쉘 쑬레이만각하

나는 레바논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2(2013)년 11월 22일 평양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답사자들 —보천보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이른새벽에 걸어오신 전화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을 불러오는 감동깊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주체89(2000)년 8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새벽 도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단잠에 든 전사를 깨운것이 미안하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도 나이가 많은데다가 어제 낮에 여러곳을 돌아보고 밤늦게까지 나와 함께 많은 문제를 의논하였기때문에 피곤할것이라고 하시며 일군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나는 동무들을 침실에 보내고 밀린 일을 처리하다가 새벽 4시가 지나 피곤하여 30분동안 눈을 붙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또 한밤을 지새우셨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못질하였던것이다.

일군은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장군님께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일보시는것도 모르고 불효막심한 저희들은 잠만 잤습니다, 장군님, 하루에 한시간도 주무시지 못하고 매일 밤을 그렇게 꼬박 밝히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올렸다.

자책어린 전사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 오면 공기가 좋아 그런지 잠간 눈을 붙여도 머리가 거뜬하고 정신이 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에 자강도에 대한 애착과 정이 어린 말씀을 새겨안을수록 일군의 뇌리에는 몇해전에 있은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자강도에서 돌파구를 열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으실 웅지를 품으시고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날도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잠을 자는데 불러서 안됐다고 하시며 도안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일군에게 인민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쓰며 일하다가 남먼저 새날을 맞이하는 멋이야말로 우리 혁명가들이 맛보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이 그날의 사연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그이의 건강을 두고 걱정에 잠겨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것은 없다고, 나는 30분을 10시간 맞잡이로 달게 잔다고, 짧은 시간에 깊이 잘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 가게 될 로정이 승용차안에서도 눈을 좀 붙일수 있으므로 일없다고, 동무는 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라고 하시며 이틀동안 자강도안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면서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고있는데 그런 좋은 인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안타깝다고 절절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자면 잠을 못 자고 고생을 더 하더라도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에 일군은 목이 꽉 메여 아무 대답도 올릴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오늘도 여러곳을 돌아보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긴장한것만큼 5시 30분에는 떠나야 한다고, 아침식사는 줴기밥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하도록 하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숭엄한 격정으로 하여 일군의 가슴은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이렇게 되여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행렬은 이른새벽에 또다시 수백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났다.

채히성

크게 보신 바늘구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주체86(1997)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의 병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실이 훈훈한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며 우리가 병실창문을 고치게 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부대지휘관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두해전 전선시찰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돌려주신 가슴뜨거운 사랑이 격정속에 안겨와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실을 돌아보시며 우리 병사들이 훈훈한 병실에서 잠을 자고 휴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실을 덥게 하기 위하여 창문설계를 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이 이런 감동깊은 사연을 돌이켜보고있을 때 창문에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만든 문틀을 쓸어보기도 하시다가 문틀 한구석에 손을 대여보시였다.

잠시후 안색을 흐리시며 부대지휘관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여기에 짬이 있구만. 속담에 바늘귀만 한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소. 창문틈새기를 잘 막지 못하면 찬바람이 들어와 방안온도가 떨어질수 있소. …

창문틈새기로는 알릴듯말듯한 찬바람이 스며들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이 짬새를 막아야지 전사들이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부대지휘관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일해나가겠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이 군무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친부모가 되여 세심히 보살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하여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이고 동무들도 있는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부대지휘관은 전사들의 친부모가 되겠다고 보고드리려 했으나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심한 사랑에 목이 메여 끝내 말을 맺지 못하였다.

혁명무력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병사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시여 바늘구멍바람도 황소바람으로 여기시며 다심한 은정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바늘구멍, 창문과 창문틈새기에 깃든 크지 않은 이 이야기는 우리 병사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을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대중운동의 성과와 당조직의 역할

올해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진행정형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키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담당한 일군들의 사업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대중운동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도에서는 2.8직동청년탄광 5갱 채탄2중대를 비롯한 10여개의 단위가 3중 및 2중3대혁명붉은기를, 신리탄광 고속도굴진소대를 비롯한 근 50개의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함흥세멘트공장, 흥남구두공장의 대중운동경험과 이 단위들의 꾸린 정형을 보여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담당한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이 운동이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통하여 그 단위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고무추동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해나갔다.

그리하여 올해에 단천시, 북청군,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 나날에 단천시 령산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이 3중3대혁명붉은기를, 허천강발전소 3호발전소를 비롯한 4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기계직장을 비롯한 5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각 시, 군(구역), 련합기업소 당조직들에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송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데서 제일 조건이 불리한 송천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단위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누구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결의목표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인식시켜 궐기단위의 일군들이 대중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재령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궐기단위들에서 내세운 결의목표를 적극 실현해나가도록 도와주면서 정상적으로 총화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운동열의를 북돋아주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천리마구역, 대홍단군, 단천시, 온성군당위원회들에서는 궐기단위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과정에 혁신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과여부가 그 수행을 위한 옳은 방법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삭주군, 형제산구역, 송림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궐기단위당조직들이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우며 평가사업도 의의있게 진행하여 이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이끌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다른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밀고나갔다.

문천시, 증산군당위원회들에서는 청년동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동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고 경제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도록 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빛나게 실현하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궐기단위의 모든 당조직의 일군들은 이 운동의 주인은 자기자신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결의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4.5청년전차갱, 문천탄광, 신의주은하타올공장, 보통강피복공장, 만경대피복공장, 안변군 비산협동농장,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창광원의 당조직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당조직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결의 목표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3대혁명붉은기와 2중 및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17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150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52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올해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는 이 운동이야말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전인민적대중운동이며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확증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사랑과 정으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명실공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애국적열의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때 그 실효가 백배로 커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결부하여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체험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 2월 중순 어느 날이였다. 갱들에서 제기된 애국적소행의 주인공들의 자료를 료해하던 초급당비서 리동철동무는 어딘가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응당 있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해당 일군들을 불러 알아보았더니 크게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것이였다.

사실 탄광에는 수십년동안 누가 보건말건 석탄증산으로 묵묵히 당을 받들어온 진주보석과도 같은 탄부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못다한 일을 땀으로 봉창하고있는 신입탄부들도 있었다. 9갱 굴진3소대 19명의 굴진공들이 그런 사람들이였다.

지난 2월 이 소대원들은 자기들에게 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낼 맹세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들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다고,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그 사랑과 믿음을 새긴 소대원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이들의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대신 애국자를 그 어떤 영웅적행동을 한 사람들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것이였다. 이 사실에서 초급당일군이 찾은 교훈은 컸다.

누구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석탄생산에 떨쳐나서게 하자면 이들의 애국심을 키워주고 발양시켜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본 초급당위원회 부비서 송창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9갱 굴진3소대 막장에 굳은 암반이 나타나 착암기정대가 부러져나가고 예비정대까지 못쓰게 되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초급당비서와 지배인 포희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나섰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또한 탄부들을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어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여주었다.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경력도 남다른 소대원들의 생일날을 기억해두었다가 푸짐한 생일상을 차려주었고 그들의 결혼식도 탄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의의있게 치르어주었다. 결혼식을 한 15명의 굴진공들에게 모든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새 집도 마련해주었다. 이런 사업은 소대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애국심을 최대로 분출시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9갱 굴진3소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날을 맞으며 년간 굴진계획을 끝내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거듭 평가해주시였다. 이 소식은 온 탄광에 애국의 열풍을 휘몰아왔다. 별로 앞선 축이 되지 못하였던 10갱, 11갱의 석탄생산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5갱 채탄2중대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결론은 명백하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의 애국심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갈 때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된다.

본사기자 손영희

누구나 새 기술의 창조자로

우시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최근 우시식료공장이 기술혁명수행에서 큰 걸음을 내짚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그쯘한 토대를 갖추어놓았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현대화전투가 한창 진행될 때의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포장기만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겠다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웠다. 그러나 초급당비서 김철남동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왜 설비를 다른데서 들여올 생각만 하는가. 우리 공장에도 쟁쟁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을 믿고 과업을 맡기자. 누구나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로 되면 아무리 어려운 설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

초급당비서의 결심은 백영명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치자는 초급당일군의 호소는 당의 품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의 열의를 최대로 분발시키였다. 백영명동무는 제품포장기설계를 자기가 맡겠다고 제기해나섰다. 설비제작은 공무작업반의 김명철동무가 완성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의 분발된 열의를 믿고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명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그에만 그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이 설비를 처음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조건에서 주저하지 않고 성공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르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지배인 장금희동무는 그들과 함께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강계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도 참관하며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었다. 또한 해당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기술문헌들과 참고자료들도 구해주었다.

당조직과 집단의 이런 믿음과 기대속에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빠른 시일안에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설비제작도 훌륭히 끝냈다. 이 사실은 초급당위원회가 기술자, 기능공들의 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도 적극 불러일으켜 공장에 기술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비록 자그마한 문제라고 해도 현장에서 제기된 새 기술혁신안에 대해서는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빛이 나도록 하였다. 결과 공장에서는 창의고안명수, 발명가대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최근 몇해동안에 콤퓨터에 의한 생산공정조종체계와 원료제품계량체계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들은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마련된 알찬 열매들이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경험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한 생산자대중이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에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사업을 짜고들면 누구나 새 기술의 주인공, 창조의 명수가 되게 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체육열풍은 곧 혁신의 열풍

재령군 래림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어디에 가나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집단의 단결력, 경쟁력, 전투력을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볼수 있다.

재령군 래림리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문화혁명결의목표에 군중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고 체육열풍을 일으켜 농업생산과 건설에서도 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올해 정초 어느날 제9작업반 거름생산현장에서 있은 일이다.

농장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거름생산전투를 벌리던 리당비서 예철수동무는 쉴참에 작업반 초급일군과 자리를 같이하고 군중체육을 어떻게 진행하고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작업반초급일군들의 태도는 예상밖이였다.

봄철전으로 하게 되여있는 탈곡기개조문제를 비롯해서 탈곡장주변정리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언제 체육사업에까지 관심을 돌릴새가 없다는것이였다.

오히려 그들은 제기되는 부속과 자재들을 리에서 해결해줄수 없겠는가 하는 의향을 슬쩍 내비치였다.

이것을 계기로 리당일군은 이곳 작업반에서 군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자기 힘으로 높이 세운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들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다음날 리당일군은 또다시 제9작업반 거름생산현장으로 나왔다. 그는 작업반초급일군들에게 가지고나온 배구공과 축구공을 안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작업반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기된 문제를 놓고 앉아서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체육을 통하여 대중의 열의를 분발시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결의목표들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고 신심도 안겨주었다. 이렇게 되여 제9작업반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작업의 쉴참마다에 탈곡장에서 공을 가지고 뛰여다니는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군중체육활동은 작업반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새 힘과 랑만을 안겨주었으며 집단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합치게 해주었다.

작업반원들은 체육경기를 진행한 후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걸린 문제들을 내놓고 집체토의하였는데 여기서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나왔다. 이 과정에 제9작업반은 결의목표들을 모두 점령하고 올해에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관리위원장 정일민, 리당일군들인 차성윤, 한원철동무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깨닫고 리에서 체육활동이 힘있게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명절날과 휴식날을 계기로 축구와 롱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을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최대로 앙양시키였다. 리적인 축구팀을 편성하여 군적으로 진행하는 체육경기들마다에서 래림리가 우승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하였다. 이런 체육열풍속에 래림리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래림리의 농장원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 사업에서의 높은 승벽심과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농사에서도 건설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은 체육열풍이 리안에 혁신의 열풍을 안아온셈이였다.

본사기자 채인철

3중3대혁명붉은기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긍지와 보람 넘친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3445호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피복공장 4직장
2.8직동청년탄광 5갱 채탄2중대
청천려관
곡산식료공장
문천시송배전소
회령경공업전문학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설비조립직장
선봉피복공장
무역집배《집삼》호

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적종합직장 준비직장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건설직장
평양대흥모피공장
평양곡산공장 열관리직장
사동대성애국편직공장 봉조1작업반
동대원구역식료품수매상점
형제산구역종합식당 서포국수집
교육과학원 중앙교수강습소
개천탄광 서재갱
평안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안석간석지건설사업소 2직장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재상사
은산고치생산사업소 은산제1작업반
개천시산림경영소 광복양묘작업반
성천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성흥혁명사적지관리소
신도군 갈종합농장 갈1분장 기계화작업반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환경과학부
신의주시 은덕원
해주은하피복공장 재봉1작업반
삼천과수농장 룡암제1작업반
사리원시제1인민병원
위원발전소 구조물직장
전천성냥공장 완성직장
원산청년발전소 1호발전직장
고성군자동차사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2광구 굴착기2작업반
무산식료공장
회령시 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경원군량정사업소
경둔탄광 금동갱 굴진중대
부래산세멘트공장 운수작업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자재공급과
성천강출하사업소 수산물가공작업반
신창수산협동조합 가공작업반
함흥통계전문학교
삼수림산사업소 중평청년작업소
삼수광산 직동갱
량강도농촌경리위원회 연유공급소
강서제사공장
동평양금속건구공장
평양시건설관리국 대학건설사업소 생필종합작업반
수도건설위원회 자재상사 운창과
평양객화차대 승무대대 2중대
신성천철도분국 석탕온천역
사리원철도분국 사리원철길대 긴등철길소대
강계철도분국 희천전철대 개고전철중대
청진철도국 부거철길대 부거철길소대
혜산철도분국 위연기관차대 운전대대
양각도국제호텔
평양음악학원 양악기악학부
평양고려호텔 회전전망식당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오리분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3446호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북창군 백운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
덕천시 승리산고급중학교
함흥시 사포구역 새거리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콤퓨터학원
삼석구역 성문소학교
곽산군 곽산초급중학교
경성군 경성소학교
청진시 라남구역 남청진소학교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소학교
리원군 영웅서흥초급중학교
혜산외국어학원
강서구역 운룡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올해전투결속에로 고무추동

강원도의 작가, 예술인, 기동예술선동대원들

강원도에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예술단예술인들과 도예술선전대,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예술단예술인들이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 나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로 끓어번지고있는 세포등판개간전투장을 찾은 도예술단예술인들은 경제선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온 전투장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도예술선전대원들과 시, 군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도안의 경공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올해 맡겨진 인민소비품생산과 다음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었다.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도 안변군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땀도 흘리고 쉴참에는 자기들이 창작한 벽시들도 읊어주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을 달아주며 그들을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총돌격전으로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영원히 그 품만을 따르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충정의 메아리

새로 나온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사상적내용

위대한 당을 따라 천만군민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 한편의 노래가 시대의 걸작으로 태여나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주체혁명위업의 년대들마다에 억세게 휘날려온 조선로동당기발, 성스러운 그 기폭속에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깨끗하고 열렬한 충정을 안고 살며 투쟁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넋과 숨결이 그대로 비껴있다.

붉은 기폭에 슴배인 천만심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펄럭임속에 어려있는 끝없는 격정의 샘이 하나로 합쳐져 또 하나의 명곡으로 태여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한 삶과 투쟁의 메아리로 새겨갈 충정의 노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정말 좋습니다.》

력사의 진리는 장구한 세월속에서 증명되고 영원성이 확증되는 법이다. 하지만 평범한 한순간을 통해 그 진리의 심오성이 검증되기도 한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전진하고 승리해온 나날에 천만의 심장마다에 고패친 신념과 의지는 오늘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모든 영광이 있다는 철리로 더욱 굳어지고있다.

새로 나온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가 절로 울려나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을 우러러 심장으로 터친 격정의 분출이다.

구절구절을 음미하여보는 심장마다에 뜨거운 샘물과도 같은 열정을 심어주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비상한 감화력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노래는 우리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는 시대의 열정과 정신에 정서적바탕을 두고있다.

당기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력사, 불멸의 업적, 전투적위용 등을 상징하는 기치로서 수많이 노래되여왔다. 그러나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서 당기는 천만군민이 손에서 놓지 않을 혁명의 기치, 표대로서만이 아니라 생을 주고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안아주는 어머니당의 정깊은 모습으로 형상되였다. 생을 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고 운명을 지켜주는 품에 대한 철석의 믿음으로 구체화된 그 모습을 감명깊이 형상한것으로 하여 노래를 받아안은 사람들 누구나 당기여 그대는 곧 우리 당의 모습이라고 소리높이 격찬하는것이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로 시작된 이 노래는 우리 당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있다.

언제나 바라보던 당기의 정답고 눈부신 자태가 위대하고 황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안겨온다. 하기에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미래라고 터치는 격정이 더없이 진실하고 뜨거운것이며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신념이 이토록 절절한것이다.

어머니가 준 생이 육체적인것을 의미한다면 1절에서 노래한 그대 준 생은 곧 그 육체와 정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당의 품을 상징한다. 그래서 생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 두고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호소적열정이 한생을 바쳐 오직 우리 당만을 사랑하고 따를 변심없을 신념의 맹세로 승화된것이다.

참다운 생을 준 위대한 당과 천만전사들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 사상과 신념과 의지를 함께 할 가장 숭고한 관계로 형상한 여기에 가사가 안겨주는 비상한 열정이 있고 충격이 있는것이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그 위대하고 신성한 력사와 업적, 지니고있는 존엄으로 하여 우러를수록 숭엄하다. 그래서 당기를 노래한 수많은 가요들의 양상이 밝으면서도 숭엄하였고 정서깊으면서도 무게있고 장엄했다. 형상의 숭엄함과 장엄함, 정서의 무게를 더욱 격증시키면서도 서정적으로 밝게 형상되고 구수하면서도 친근하게 노래된 여기에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웨침을 낳은 정서적감화력이 있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정답고 눈부신 자태로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희망과 미래의 전부인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온 생을 다 바쳐 끝없이 쏟아부을 뜨거운 열정의 세계로 노래되였다.

이런 사상정서의 흐름을 타고 2절에서 깊어진 형상세계는 《그대 불같고 줄기찬 열정 펄럭임소린 나래펴는 조국의 노래》이며 우리의 꿈, 우리의 행복의 전부인 그대를 위해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는 신념의 메아리이다. 1절에서 터뜨린 서정의 물결이 영원히 뜻과 신념과 의지를 다해 따르리라는 불같은 맹세의 격랑으로 용용히 굽이친것이다.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타오르는 불, 줄기찬 열정으로 안겨지며 그 힘과 의지로 거연히 일떠설 조국의 래일속에 만발하는 인민의 꿈, 인민의 행복이 방불히 그려진다. 가사에 굽이치는 그 서정의 힘은 결코 생동하면서도 뜻이 깊은 몇개의 어휘가 아니라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낳는 필승의 확신과 한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주는것이다.

고결한 사랑의 감정과 참된 의지는 3절에서 억척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세월의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를 믿었기에 혁명의 준엄한 시련과 폭풍우를 헤쳤고 그 믿음이 곧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낳고 승리를 가져왔음을 노래하는 3절의 가사형상이야말로 천만군민의 심장의 맹세를 그대로 전하고있다.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진해왔고 존엄높은 당기를 높이 들고 승리를 떨쳐갈 비상한 열정이 시가 되고 선률이 되여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가사의 특출한 감화력, 영원한 생명력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세련된 시적형상속에 담아냈는가 하는데 있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는 어떤 현란한 수식사나 미사려구도 없다.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어휘가 내는 맛을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속에 잘 조화시킨 노래는 그 서정의 힘으로 우리 당기발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혀주고있다.

특히 매 절들을 《당기여》라는 부름으로 끝맺는 노래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어머니를 찾고 부르는 자식의 마음처럼, 그 어머니와 손잡고 행복에 겨워 웃는 얼굴처럼 순결하고 진실한 모습은 없다. 노래는 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그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당기여》라는 친근한 부름으로 서정깊이 형상함으로써 형언할수 없는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끌어당기고있다.

이것이 바로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낳는 시대의 감정이며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한생을 빛나게 수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당기, 혁명의 모진 폭풍우를 헤쳐가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맥박이 고동치는 숭엄한 당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정을 주고 사랑을 주며 믿음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근한 품과도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당기…

력사는 이 노래와 더불어 새기고있다. 위대한 당기의 펄럭임소리를 나래펴는 조국의 노래로 새기며 붉은 당기를 추켜들고 나아가는 인민은 모든 영광을 맞이한다는것을.

시대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조국찬가》와 더불어 천만군민에게 신념의 표대를 세워주었다.

영원히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받아안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목소리이며 주체의 붉은 기발을 억세게 추켜들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선군조선의 웨침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담겨진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충정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권 선 철

량 강 도 에 서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

량강도에서 대중체육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온 도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는 속에 누구나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게 몸을 튼튼히 단련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되게 하려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체육지도위원회 일군들은 체육을 중시하는것이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책임일군은 도의 대중체육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체육사업을 당, 행정, 근로단체조직들이 적극 떠밀어주며 특히 당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대중체육열기가 날로 높아지는데 맞게 혜산시와 군들에서 대항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대항경기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항경기에서는 혜산시와 풍서, 운흥, 삼수군의 근로자들이 보람찬 로동속에서 련마한 체육기술을 매 경기들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여 롱구, 배구, 바줄당기기, 씨름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과 백두산들쭉가공공장, 도인민병원에서는 배구장을 잘 꾸려놓고 경기와 훈련을 정상화하고있다. 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매일 아침 경쾌한 음악선률에 맞추어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를 하고있다. 도무역관리국에서는 부서들사이, 산하단위들간의 체육경기들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서로의 경쟁심과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하고있다.

혜산시에 대중체육열풍이 일고있다.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 혜산목재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기관들과 단위들에서는 체육의 날 운영과 대중체육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국가적명절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체육경기들과 유희오락경기들을 다채롭게 진행하여 온 시에 랑만과 희열이 넘치게 하고있다.

김정숙군에서는 책임일군들이 대중체육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군의 체육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주변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롱구장과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공원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현대적인 체육관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난 기간 속도빙상, 스키경기들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던 경험을 살려 도에서는 겨울철대중체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은 패전의 교훈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

지금으로부터 3년전 11월 23일 서남전선 열점지역에서는 도발자들의 무모한 선불질을 정의의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통쾌한 포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연평도를 통채로 불바다로 만들어놓은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들의 즉시적인 대응타격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그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온 세계가 보란듯이 과시한 일대 쾌거였다.

연평도포격전은 철두철미 우리에 대한 피뢰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로 하여 발생하였다.

그때 우리를 반대하는 《호국》전쟁연습에 광분하던 피뢰들은 11월 23일 연평도에서 우리 령해를 위협하는 모험적인 포사격훈련을 강행하겠다고 공개하였다.

우리 군대는 즉시 통지문으로 날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피뢰들의 악랄한 도발흉계를 단죄하면서 분별있게 처신할데 대한 사전통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극도의 도발광기에 들뜬 피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사전통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신성한 우리 령해에 함부로 불질을 해대기 시작하였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것이다.

우리의 영용한 서남전선군 장병들의 드센 반격이 일제히 개시되였다.

노호한 멸적의 불줄기가 도발자들의 본거지인 연평도를 뒤덮으며 쏟아져내렸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연평도는 말그대로 불바다천지로 변하였다.

피뢰군놈들속에서 주검과 부상자들이 속출되고 명줄이 붙어있는 놈들은 저저마다 살구멍을 찾아 대피소와 은폐호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피뢰군병영들과 지휘소들, 경찰서를 비롯한 군, 경대상물들이 재더미로 화하고 허세를 부리던 《K-9》곡사포들과 전파탐지기들을 포함한 각종 화력타격수단들이 파철로 되여버렸다.

무서운 보복타격에 혼쭐이 난 피뢰군부는 급급히 우리 군대더러 포사격을 중지해달라고 애걸하는 통지문까지 보내오는 추태를 드러냈다.

북남관계사에 일찌기 없었던 항복서를 바친것이나 다름없었던것이다.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기 바쁘게 황급히 청와대 지하실에 뛰여들어간 리명박역도는 《확전》만은 막아야 한다고 비명을 내지르고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놈이 공개석상에 나타나 《지울수 없는 뼈아픈 상처》이며 《엄청나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례》였다고 실토정한 사실이 공개된것은 그후의 일이다.

연평도포격전은 신성한 우리 자주권과 존엄을 함부로 침해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타격전이였다.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들이 감히 우리의 령해에 불질을 해댄 도발자들의 망동을 무자비하게 다스린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연평도포격전은 피뢰군부호전광들에게 무모한 도발의 대가가 어떠한가를 톡톡히 가르쳐준 자주권수호자들의 통쾌한 보복전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또한 동족대결광신자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기도 하였다.

당시 하늘끝에 닿은 서리찬 증오는 멸적의 불줄기로 이어졌고 이글거리는 분노는 연평도를 통채로 재더미로 만들어버렸던것이다.

연평도포격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한명의 피해도, 단 한정의 무기손실도 없이 용감무쌍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자랑찬 승전이였다.

포격전이 벌어지던 전기간 서남전선군 장병들과 우리 인민들은 함께 싸웠으며 통쾌한 포격전이 끝난 후에는 진지주변 산봉우리들과 주택마을의 지붕우에까지 올라가 쾌승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힘과 용기를 나누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싸우며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연평도의 패전광경은 참으로 꼴불견이였다.

주민들은 물론 피뢰군장병들까지 공포와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저마다 섬탈출을 시도하는통에 인천으로 향하는 드넓은 바다길마저 막혀버리는 등 제살구멍을 찾아 모래알처럼 흩어져나가는것이 그 당시 피뢰들의 패전상이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연평도포격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해부터 연평도포격전이 마치 우리의 《도발》로 발생된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지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면서 반공 《기념행사》를 벌리는 광대극을 펼치고있다.

세상천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승전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나라와 민족은 있어도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 《기념》하는자들은 오직 남조선괴뢰들뿐이다.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지난해는 지능수치가 2MB인 리명박역도여서 그렇다치더라도 박근혜와 그 패당이 노는꼴을 보니 역시 그놈이 그놈이다.

박근혜와 그 패당은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것이 서남전선군 장병들을 포함한 우리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3년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였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될것이다.

지금 괴뢰들은 연평도포격전의 패전을 만회해보려고 그 무슨 다련장로케트와 신형대포병례이다, 《코브라》공격직승기와 《스파이크》미싸일을 비롯한 타격수단들을 증강배치했다고 흰소리를 치고있다. 그런가하면 서해 5개섬에 대한 1단계 《요새화》공사가 끝났다면서 우리의 타격을 피할수 있게 된듯이 여론을 조성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를 막는 우산을 쓰고 불소나기를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짓에 지나지 않는다.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우리의 군사적타격앞에 그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폭양아래 엿가락처럼 되고만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단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불바다가 청와대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은 패전의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처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수호자들인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것이다.

주체102(2013)년 11월 22일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고결한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걷는 길

구장군인민보안서 김정옥동무

얼마전 구장군 읍의 어느 한 살림집에서는 밤깊도록 절구질소리가 끊길줄 몰랐다. 절구질을 하는 녀인의 이마에는 땀방울들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구장군인민보안서의 김정옥동무였다. 절구옆에는 꿀단지며 여러가지 약초가루봉지들이 놓여있었다.

밤늦게 퇴근해온 장용근동무가 절구공이를 잡으며 안해에게 물었다.

《무슨 보약을 만드오?》

《계절이 바뀌는 때가 아니예요. 문영실할머니와 태식동무가 걱정되는군요.》

안해를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장용근동무는 말없이 일손을 놀리였다.

다음날 김정옥동무는 보약단지들을 안고 문영실전쟁로병과 영예군인 리태식동무의 집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김정옥동무가 문영실전쟁로병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가정에서 마련한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안고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장에 갔던 김정옥동무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매일과 같이 샘물을 떠다주는 한 전쟁로병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날 김정옥동무는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전쟁로병의 집을 찾아갔다. 전쟁로병은 군인건설자들에게 김치를 담그어주겠다며 터밭에서 가꾼 신선한 남새들을 손질하고있었다. 김정옥동무는 전쟁로병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이 헤쳐가던 불비쏟아지는 전선길과 희생을 무릅쓰고 원군길을 달려가던 인민들의 모습, 화선병사의 발걸음으로 원군길을 이어가던 나날들에 대하여…

그때부터 김정옥동무는 문영실전쟁로병과 원군길을 함께 걸었으며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집에서 생기는 별식도 전쟁로병에게 먼저 대접하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지난해 문영실전쟁로병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두었던 례장감으로 새옷도 지어주고 생활필수품들도 성의껏 갖추어주었다.

전쟁로병에게 바치는 김정옥동무의 지성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마을사람들이 지금껏 친딸이라고만 생각해왔으랴.

했어도 김정옥동무는 전쟁로병을 위하는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빈구석이 생길세라 늘 마음을 썼다.

몇해전 전쟁로병의 집을 다녀오던 김정옥동무는 길가에서 영예군인 리태식동무를 알게 되였다. 리태식동무가 앞가슴에 달고있는 영예군인메달이 김정옥동무의 눈가에 왜 그리도 친근하게만 안겨왔던지.

김정옥동무의 발길은 리태식동무의 집에도 향해졌다. 살림집을 번듯하게 꾸려주는것과 함께 가구들도 더 좋은것으로 마련해주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땔감도 가져다주고 김장철에는 남새는 물론 양념감까지 준비해다가 김치를 맛나게 담그어주었다.

영예군인의 딸이 시집을 갈 때에는 례장감과 결혼식에 필요되는 물자들도 마련해주었다.

김정옥동무의 집에는 부피두툼한 원군일지가 있다. 그 원군일지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과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 바친 애국의 마음도 기록되여있다.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전쟁로병과 영예군인을 위하는것을 세대의 마땅한 의무로 간직하고 그 길에서 더없는 긍지와 행복을 찾는 김정옥동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기에 사회주의대가정의 화원이 만발한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조 경 철

교육자가정의 저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에 의해서만 높은 실력을 지닐수 있습니다.》

즐거운 교육자가정의 밤이다.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나는 이 밤 청진시 포항구역 수원1동 69인민반의 한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앉아 학습에 여념이 없다. 세대주인 조명열동무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교육일군이며 그의 안해 박금실동무는 수십년간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포항구역 남강초급중학교 교장이다.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한 맏딸 조충심동무는 대학의 연구사이고 둘째딸 조성실동무는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이다.

맏딸의 소원은 세계를 놀래우는 발명가가 되는것이고 둘째딸의 희망은 어머니처럼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후대교육에 한생을 바치는것이다. 둘째딸은 어머니의 부피두터운 교양자료집과 교수경험집들을 탐독하다가 문뜩 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처럼 높은 자질을 갖추자면 정말 헐치 않겠어.》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어머니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후대교육에 바치겠다는 그 각오가 더 중요해.》

두 딸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가벼운 웃음을 짓는다. 어머니가 맏딸의 소원도 훌륭하지만 둘째딸의 희망을 더 중히 여기는것은 그때문이리라.

아버지가 맏딸의 말을 긍정하며 둘째딸에게 자기의 교수경험을 들려준다.

밤깊도록 진행되는 격식없는 교수경험토론회, 이들에게는 밤이 없는듯싶다. 교육자가정의 밤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

저 하늘의 뭇별들도 교육자가정의 앞날을 축복하는가 밝은 빛을 뿌리며 잠들줄을 모른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였다.

19일부터 빙상관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날로 발전하고있는 나라의 체육과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종목별체육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체육기자재 및 측정기구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체육프로그람부문에서는 체육과학연구소가, 체육의약품 및 영양제부문에서는 체육영양연구소,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조선체육대학이 종합 1등을 하였다.

22일에 있은 폐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부문 과학자, 기술자, 각급 체육단 과학기술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김일국 체육성 제1부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참가자들이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녀맹위원장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동일군들속에는 형제산구역 서포3동 녀맹위원장 김희숙동무도 있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주민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는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언제나 주민들과의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모두가 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그는 늘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주민들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그를 모두가 우리 녀맹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한

연 회 진 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하여 무역성과 문화성에서 마련한 연회가 22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남, 김형준, 구본태, 한철, 황호남, 판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몽골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몽골에서 진행되는 동북아시아나라 녀성국회의원들의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김성희대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오스트랄리아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귀국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진행된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제19차총회와 대표리사회에 참가하였던 백용호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대결전쟁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민족단합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의 전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대결과 전쟁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지금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그것은 바로 괴뢰패당이 추구하고있는 《원칙고수론》의 산물이다. 괴뢰들은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짜는것》을 《원칙》으로 내들고 그것을 고수한다고 떠벌이면서 북남관계를 위기국면에로 몰아갔으며 무분별한 불장난소동과 극단적인 도발책동으로 동족대결과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괴뢰반역패당의 《원칙고수론》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인 북침핵전쟁론이다.

괴뢰들이 떠벌이는 원칙이란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다는것이다. 《확실한 억제력》이란 다름아닌 미국과의 《동맹》이다. 현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상전을 만나 남조선미국《동맹》이 《평화와 안보협력의 축》이라느니 뭐니 하고 아양을 떨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미국《동맹》을 토대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력설하였다. 졸개들도 쩍하면 남조선미국《동맹강화로 북핵에 긴밀히 대응》이니, 《공동대비태세》니 하면서 외세공조구걸에 여념이 없다.

괴뢰들이 내세우는 북남관계의 원칙이라는것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신뢰를 쌓겠다는것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해괴한 망발이 아닐수 없다.

민족분렬의 주범은 외세이고 외세를 몰아내자면 북과 남이 힘을 합쳐야 하는것이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순리이다. 그런데 제 집안문제해결에 강도를 끌어들여야 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나발인가. 외세는 절대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북남관계가 완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동족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이 외세의 흉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북남관계를 남조선미국《동맹》에 토대하여 풀겠다고 떠드는것은 결국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들은 언제까지나 미국상전의 겨드랑이에 붙어 기생할 심산으로 ２０１５년까지 계획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시기를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애걸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방대한 군사장비를 끌어들여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올해에만도 괴뢰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악명높은 핵전쟁장비들을 련일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들이 《북핵불용의 원칙》이니, 《핵위협에 공동대처》니 하고 떠벌이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위험천만한 기도를 현실화하고있는것이다.

괴뢰패당이 미국과 제４５차 년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채택한것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불순하기 짝이 없는 핵전쟁도발각본이다. 이것은 내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기도가 단순한 위협단계가 아니라 실천단계에 들어섰으며 조선반도가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예측할수 없는 극도의 불안정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괴뢰반역패당의 《원칙고수론》은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무분별한 적대행위로 북남관계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는 악랄한 동족대결론이다.

괴뢰집권세력이 말끝마다 운운하는 《원칙》은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것이다. 현 집권자는 청와대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대결미치광이들을 모아놓고 《북의 도발에는 철저히 대응한다는 〈정부〉의 립장은 확고》하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괴뢰군부호전광들도 최전연일대들을 싸돌아치며 《강력한 억지력구축》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북침열을 고취하고있다.

《북도발》설이 케케묵은 《남침위협》설의 변종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낡디낡은 력사의 폐기품을 또다시 끌어내다가 《원칙》이라고 못박아놓은것은 그들역시 동족대결에 발광해온 력대 통치배들과 한치도 다를바 없는 극악한 반역집단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괴뢰들은 《원칙고수》의 간판밑에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리고있다. 최전연일대에서의 삐라살포와 심리전재개도 《원칙고수론》에 따른것이고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의 끊임없는 무력증강도 《원칙고수》를 위한것이며 매일같이 벌어지는 각종 북침불장난소동도 《원칙고수》의 결과이다. 특히 괴뢰들이 《강력한 대북억지력조성》의 맥락에서 벌려놓고있는 《킬 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놀음은 스쳐지날수 없다. 《킬 체인》이란 우리에 대한 미싸일선제타격체계이다. 괴뢰들은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선제공격으로 제거한다는 간판밑에 《킬 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놀음을 벌려놓고 미국으로부터 무인정찰기를 끌어들인다, 장거리순항미싸일을 개발한다 하면서 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그것을 주축으로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최근에는 《북위협대비》를 떠벌이면서 항공모함까지 개발하겠다고 발광하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북침전쟁의 전초기지로 더욱 전락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유린되고있다.

지금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쩍하면 《멸망》이니,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타격》이니 하고 객기를 부리면서 군사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으로 북남대결상태를 폭발의 문어구에 몰아감으로써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터치겠다는것이 괴뢰패당의 흉심이다. 제반 사실은 괴뢰패당의 《원칙고수론》이야말로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악한 대결론, 전쟁론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민족에게 커다란 재앙을 몰아오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저해하는 《원칙고수론》은 당장 철회되여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민족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면서 범죄적인 《원칙고수론》을 내들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겨레의 지향을 모독하는 대결망언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민족의 숙원을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역도는 얼마전 그 무슨 특강이라는데서 《시대에 맞는 통일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필요하다면 《통일이란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쓸개빠진 나발을 불어댔다. 민족분렬의 비극적현실을 그 무엇에 비유하며 《부끄러운것》으로 보지 말고 드러내놓아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앞으로 《통일》은 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제넘은 망발도 거리낌없이 줴쳐댔다. 민족의 수치도 모르는자의 대결넉두리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근 ７０년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분렬사에 류길재역도와 같이 통일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공공연히 떠벌인자는 처음이다. 이자의 망언을 줴짜면 저들이 추구하는 《체제통일》야망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겨레의 지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덜대고있으니 실로 개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는것을 전제로 한 통일이 아니다. 조국강토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통일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고귀한 진리를 우리 겨레는 이미 ６．１５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하여 가슴뿌듯이 체험하였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 진리를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류길재가 모른다는것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새삼스럽게 《시대에 맞는 통일개념의 정립》을 운운한것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으로 열려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부정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가 떠벌인 《시대》란 다름아닌 ６．１５통일시대가 아닌 대결시대를 의미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류길재가 떠드는 《통일개념》이 얼마나 황당하였으면 남조선의 전문가들속에서까지 《리해할수 없》다, 《모호한 통일》이라고 야유, 조소하고 있겠는가.

역도가 민족분렬의 비극이 그 어떤 자랑거리라도 되는듯이 《부끄러운것》으로 보지 말라고 역설한것도 분렬을 고착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간특한 요설이다.

민족의 분렬을 가슴아파할 대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드러내놓아야 한다고 한것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앞당기려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을 완전히 격페시켜 분렬을 영구화하겠다는것외 다른것이 아니다. 분렬된 땅에서 태여난 세대가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오늘날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하겠는가. 바로 현 괴뢰패당은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 《통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민족의 분렬을 지속시킨 《유신》독재광들의 매국반역적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하고있다.

문제는 류길재역도가 떠벌인 잡소리의 밑바탕에 《체제통일》기도가 깔려있다는데 있다. 괴뢰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우리의 《핵포기》와 《변화》를 떠들다 못해 외세와 야합하여 누구를 그 어디에로 《유도》해보겠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것도 그들의 어리석은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류길재역도는 이번에 온 겨레의 불같은 념원인 통일을 우롱하고 모독함으로써 민족사에 매국역적으로 다시금 락인되였다. 류길재에게는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대결부 장관이라는 감투가 더 어울릴것 같다. 이런자를 통일부 장관자리에 올려앉혔으니 북남관계가 개선될리 만무한것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다.

조국통일을 반대해나선 매국노들은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최 철 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역적패당의 전면적인 파쑈적탄압과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반대하는 로동자들과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120개 비정규직로조와 16개 산별로조, 지역본부 조합원 5만여명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공무원로동조합에 대한 해체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는 괴뢰당국을 독재《정권》으로 락인하고 《박근혜정권퇴진》, 《정보원해체》, 《공안탄압분쇄》의 구호를 웨치며 보수패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로동단체들의 대중적인 항거에 적극 합세하여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말살과 파쑈독재부활에로 질주하는 괴뢰패당과의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성토대회와 초불집회를 열면서 시가행진에 용약 떨쳐나서고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괴뢰패당은 1만여명의 방대한 경찰병력을 내몰아 물대포까지 쏘아대면서 평화적인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로동자들과 각계층 단체들은 이에 단호히 맞서 투쟁기세를 더욱더 높이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수호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항거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요구마저 전면 외면하고 남녘땅에 또다시 가장 악독한 《유신》독재시대를 몰아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유신》잔당들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쌓이고 맺힌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괴뢰패당의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악명높은 《유신》독재부활책동을 전체 조선로동계급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 남조선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유신》독재부활을 용납하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놓여있으며 민주와 파쑈와의 대결은 절정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그 어느 폭압정권도 현 보수《정권》처럼 집권초기부터 파쑈적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으면서 최악의 상태에 빠진 통치위기의 출로를 위해 로동운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키며 발광해나선 례는 없었다.

기만적인 《선거》공약과 파쑈통치유지의 모략기구인 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들을 총발동하여 온갖 부정과 협잡의 방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괴뢰보수패당은 저들의 반민주적, 반인민적통치와 《유신》독재부활에 장애로 되는 일체 정치적반대세력들을 모조리 와해말살하기 위한 기회만을 노려왔다.

이를 위해 괴뢰패당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함께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을 그 첫 과녁으로 선정하고 《남남갈등의 온상》이니, 《종북세력》이니 뭐니 하는 죄명을 들씌워 송두리채 해체말살하려고 날뛰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민주말살과 《유신》독재부활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남조선에서 진보와 민주의 싹을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림으로써 친미사대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보수집권연장의 터를 닦아보려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수십년전 인민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되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재난이다.

40여년전 전태일렬사가 극악한 《유신》독재에 단호히 항거하여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절규하면서 온몸을 불살랐다면 오늘은 되살아나고있는 《유신》독재와 괴뢰당국의 악정에 치솟는 격분과 울분을 참을수 없어 로동자들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과 가정을 남겨두고 목숨까지 끊는 참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현 사태는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더러운 명줄을 지탱해보려던 친미파쑈독재자에게 파멸을 선고한 1960년의 4.19인민봉기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민주와 파쑈독재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피로써 쓴 교훈이다.

최루탄도 감옥도 두려움없이 언제나 민주화의 혈로를 앞장에서 개척해온 남조선로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진통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으며 각계층 인민들을 반독재민주화투쟁에로 부르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청와대앞뜰이나 여의도광장에서 말장난으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제도를 갈망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 이루어진다.

괴뢰당국이 강요한 로조설립신고서를 단호히 찢어버리고 1 700만 로동자들과 어깨겯고 생존권개선과 민주쟁취를 위해 파쑈독재와 끝까지 싸울것을 선언한 민주로총의 의로운 결단과 기개는 온 남녘땅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자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기세에 적극 련대련합하여 낡고 부패한 파쑈독재정치를 갈아엎고 인민의 새 정치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로운 항쟁의 거리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북녘의 로동계급은 민주화된 새 사회와 진정한 새 삶을 위해 결연히 일떠선 남녘의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11월 22일
평 양

친일매국노들이 받는 응당한 대접

최근 일본수상 아베가 언론들앞에서 남조선을 가리켜 《어리석은 지역》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한것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에서 최대의 시사주간지로 불리우고있는 《슈깡붕슈》가 얼마전 《남조선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문제의 발언내용을 공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괴뢰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일본외무성에 대고 《유감》이니, 《우리 〈정부〉를 깔보는 발언》을 계속할 경우 남조선일본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볼부은 소리를 하면서 어쩌면 그럴수 있느냐고 하소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이다. 남조선괴뢰들따위는 저들의 대신집 강아지만큼도 여기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그런 푸념쯤 귀에 들어올리 만무한것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금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독도강탈야망은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력사에 전무후무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한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무릎꿇고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재침을 노린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평화헌법》개정에 의한 《집단적자위권》행사합법화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빼앗기 위해 발광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 무슨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해놓고 그와 관련한 광대극을 ２００５년부터 년례적으로 벌려온 일본반동들은 올해에는 거기에 정부당국자까지 뻐젓이 참가시켜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게 하였다.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규정한 방위백서가 발간되고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을 담은 동영상까지 인터네트를 통해 공공연히 류포되고있으며 독도가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경우 그것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단정하고 즉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탕탕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괴뢰당국의 자세는 비굴하기 짝이 없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괴뢰외교부는 《부정적인 영향》이니 뭐니 하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있다. 최근 괴뢰외교부가 독도표기와 관련하여 독도와 《다께시마》로 함께 표기하게 하여 단독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지침이라는것을 외국주재 괴뢰대사관들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킨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피비린 과거사를 뻔뻔스럽게 외곡하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해나서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괴뢰들의 태도를 보아도 그렇다. 알려진바와 같이 １９９２년 １월 ８일부터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집회가 진행되군 한다. 거기에서는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세계적인 비난거리로까지 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놓고 표현이 잘못된것이라느니,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동이라느니 뭐니 하고 참을수 없이 모욕하고있다.

민족적격분을 금할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행위에 괴뢰패당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２０１４년에 열리는 한 녀성문제관련회의에 특별의제로 상정시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외면해나섰다.

지어 괴뢰패당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재침의 칼을 벼리는 날강도적인 일본반동들에게 아부추종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동조해나서는 친일역적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괴뢰들의 망동은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열성껏 꼬리를 흔드는 삽살개를 방불케 한다.

언제인가 남조선신문 《동아일보》가 《력사외곡에서 일본인들의 오만한 태도보다도 우리의 저자세가 더 문제이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일본은 우리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언행들을 수없이 해왔다. 심심하면 독도가 자기네들땅이니 어쩌니 하기도 하고 소위 일본정부를 대표한다는 총리나 각료들이 망발을 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 한번 호되게 따지지 못했고 면박을 주지도 못했으며 결말을 시원하게 맺은적은 더구나 없다.》고 비난한것은 우연치 않다.

예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였다. 민족의 넋과 자존심도 다 줴버린 매국역적들이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있으니 일본반동들이 어찌 남조선을 깔보면서 혀를 아무렇게나 놀려대지 않을수 있으며 오만방자하게 날뛰지 않겠는가.

외세에 추종하는 하수인들의 처지는 언제나 가련하고 비참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대중적항거에 부딪친 《유신》잔당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시위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속에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억누르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인민들의 시위투쟁은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폭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들의 투쟁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마구 탄압하는것은 파쑈독재자들이나 저지를수 있는 범죄적만행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유신》독재자와 뗄래야 뗄수 없이 련결된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유신》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통치체제와 청와대의 직할통치체제를 구축하고 파쑈폭압기구도 《유신》독재식으로 개편하고 되살렸다.

얼마전에 있은 인민들의 대중적인 시위투쟁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소동은 괴뢰패당의 파쑈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준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１０일 민주로총은 서울에서 5만명의 참가하에 로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９０개 중대의 기동대깡패들을 들이민 괴뢰경찰당국은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에서 한층 강화된 《１５분만에 즉시 현장처리》를 떠들며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시위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였다.

추운 날씨에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는 경찰의 망동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경찰의 이와 같은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법질서준수원칙아래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면 안된다는 지시가 떨어진것으로 알고있다.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가 １５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하라는 지시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차관급에 불과한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수가 없다면서 괴뢰당국자가 서유럽행각에 나서기 전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까밝혔다.

괴뢰청와대의 피비린 폭압지령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괴뢰경찰이 지난 ８일부터 수갑과 경찰봉, 포승줄 등 장구류들을 착용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여있던 제도를 폐지한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로써 파쑈깡패들은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인민들을 마구 련행하여 철창속으로 끌어갈수 있게 되였다.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할 때마다 살벌한 폭압선풍을 일으키며 인민탄압에 매달리는것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이 써온 상투적수법이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이 감행하고있는 파쑈폭압소동은 그 비렬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선행독재자들의 망동을 릉가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가 공공연히 되살아나는 속에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스산한 폭압광풍이 몰아치고있다.

괴뢰집권세력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 성원들을 체포구속하고 그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종북》이니 뭐니 하며 이 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고있다. 괴뢰법무부는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6개월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것이라고 한다.

파쑈도당은 지난 8일 전국공무원로조(전공로)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렸다고 떠들면서 이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한편 진보적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야말로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에나 볼수 있던 스산한 폭압광란이 재현되고있다.

날로 광기를 띠고있는 파쑈적탄압책동은 현 집권세력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당국은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탄압을 합리화할 하등의 명분이나 리유도 없다. 남조선에서 대중적으로 일어나고있는 반《정부》투쟁에 대해 보수패당은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의 현 통치위기는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는 그들자신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다.

북남관계파국과 핵전쟁위기의 심화, 일대 사회적혼란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희세의 사기협잡과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범죄적내막이 낱낱이 드러나 보수패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괴뢰패당은 그 출로를 인민들에 대한 파쑈탄압과 반공화국모략책동의 강화에서 찾고있는것이다.

괴뢰당국이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다.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인민을 등지고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있는 반역《정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인민은 강권과 폭압, 모략정치를 일삼는 반역통치배들에 대해서는 자비와 용서를 모른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은 무서운 용암마냥 이글거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대중적인 항쟁으로 번져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독재와 폭압에 매달리는 반역통치배들은 인민의 무자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심 철 영

군부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김관진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집권자의 독선적인 통치방식을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5일 독단과 전횡을 부리는 괴뢰패당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현재 공공기관 우두머리들가운데 현 《정부》가 들여앉힌자가 45.5%를 차지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자들의 등용은 박근혜와 밀접히 얽혀있어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비난받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재타도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다

지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한 공화국북반부의 각계층 인민들은 파쑈독재광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보내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전기호는 과거 독재시대의 폭압이 ２１세기인 오늘에 와서 재현되고있다는것은 조선민족의 수치이고 범죄행위이라고 단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의와 진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들의 파쑈적만행은 지금 우리 전체 로동계급의 치솟는 증오심과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의 무쇠마치로 괴뢰들의 란동을 짓뭉개버릴 마음뿐이다.

지금 남조선은 진실을 말하고 옳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체포투옥되고 흰것도 검은것으로 되며 온갖 기만과 협잡, 음모가 횡행하는 암흑의 사회로 변해가고있다. 한피줄을 나눈 형제들이 한줌도 못되는 반역아들에 의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회가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락되고있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

당장 달려나가 폭압에도 굴함없이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과 어깨를 겯고 악의 소굴을 들부시고 민족의 한을 속시원히 풀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다. 이제 괴뢰패당은 민심을 거역한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장원 원금숙은 동족을 만났다고 하여 《간첩》으로 몰리우고 평양을 방문하였다고 하여 철창속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비극적사태앞에서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아오르는것만 같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터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이 어제는 바깥에서 동족대결나발을 불어대더니 오늘은 집안에서 사람잡이에 미쳐날뛰고있다.

박근혜의 망동은 꼭 제 애비를 본땄다. 《유신》독재자가 남조선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애국적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그 후예가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고있다. 이런 무지막지한 망동에 항거하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투쟁의 초불을 추켜든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마음도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로 달리고있으며 지금 우리들은 파쑈도당에 대한 불타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말겨진 영농과제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독재자의 본을 따면 종말도 답습하게 된다는것을.

평양기계대학 학생 리남진은 파쑈적폭거에 항거하여 《박근혜와의 전면투쟁》을 선포한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의 반《정부》투쟁은 무섭게 폭발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을 깡그리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괴뢰보수패당을 반대하여 타오르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은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다.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이 《체제수호》와 《종북세력척결》을 부르짖으며 남녘땅을 민주의 페허지대로 만들고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지를 꺾을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의 《정권퇴진》투쟁은 그들의 세기적숙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우리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인사를 보내면서 남조선의 모든 청년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오늘의 투쟁은 정의와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되여있다.

파쑈독재자들을 꺼꾸러뜨리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넋이 그대들을 전인민적항쟁에로 부르고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구호를 웨치며 과감히 싸운 부모들처럼 서로 마음과 걸음을 합쳐 독재《정권》을 들부시라.

승리와 미래는 청년들의것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히 한 력사적계기

오랜 기간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온 조중친선의 력사에는 전통적인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주체42(1953)년 11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시여 주은래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뜻깊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킬데 대해서와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합의를 보시였다.

주체42(1953)년 11월 23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은래총리와 함께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시였다.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은 경제, 문화분야에서 두 나라 협조의 전반적틀거리와 발전방향을 확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마련하시고 물려주신 귀중한 재부이다.

이 협정이 체결된것은 반제자주, 민족적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것을 경제문화분야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법률적기초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두 나라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경제, 문화분야에서 적극 지지협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중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고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상봉하시고 우정을 두터이 하시였다. 중국의 지도간부들은 중국인민은 중조친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경제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것은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일찌기 첫 외국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고 꽃피워주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첫 중국방문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외활동으로 조중친선협조관계는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결코 달라질수 없다는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조중친선의 계주봉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그것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현 세대가 지닌 중대한 력사적사명이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로고와 간절한 념원이 어린 조중친선의 화원이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활짝 꽃펴나도록 하시기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8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중국방문은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전진시키는데 기여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는 조중친선의 거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나날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중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올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에게 친서를 보내시였다. 친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께서 마련하시고 꽃피우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계승하고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난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리원조동지를 접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활력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오늘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지지협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중국인민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꾸준히 전진하고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중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중국인민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최후승리를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문화협조를 강화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날로 긴장해지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를 안정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조중친선협조관계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조중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날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리 학 남

김일성대원수거리명명 19돐 기념행사

캄보쟈에서 진행

김일성대원수거리명명 19돐 기념행사가 14일 캄보쟈의 프놈뻰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프놈뻰시리사회와 시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김일성대원수거리 현판표식비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프놈뻰시리사회 성원 쭙 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념원에 맞게 오늘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훌륭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을것이다.

우리는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상징인 김일성대원수거리 보존관리사업을 더 잘해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

문명강국건설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

우루과이신문 글 게재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14일부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이 지향하고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이다.

문화의 모든 분야를 문명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움으로써 사람들이 새 세기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이에 따라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전반적무상치료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등이 훌륭히 일떠서 전문적인 의료봉사망이 더욱 완비되였으며 각지에 수많은 료양소들이 개건되고있다.

조선을 휩쓸고있는 체육열풍은 그대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평양시 중심부의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조선의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등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련이어 건설되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생활조건들이 완비되여가고있다.

또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가 실현되고 도시와 마을들이 풍치수려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전망들이 펼쳐지고있다.

신문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과외활동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태평양중립수역 상공을 순찰비행

로씨야공군 전략폭격기 《Ту-95МС》 2대가 18일 태평양중립수역 상공을 순찰비행하였다.

우크라인까공군기지에서 리륙한 폭격기들은 약 15시간 비행하였으며 급유기 《Ил-78》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았다.

로씨야공군 대변인은 폭격기들이 항공순찰계획에 따르는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비행과정에 승조원들이 방위판정이 곤난한 수역에서의 비행술을 련마하였다고 밝혔다.

순항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18일 라져스탄주에 있는 한 사격장에서 《브라모스》 초음속순항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미싸일은 발사후 예정된 궤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비행하여 지정된 콩크리트구조물의 중심을 성공적으로 뚫고들어갔다고 한다. 이 미싸일은 공중과 해상, 지상에서 다 발사할수 있다고 한다.

탄소섬유제품의 산업화 실현

중국이 항공우주와 국방공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리용되는 탄소섬유제품의 산업화를 실현하였다.

나라에서는 탄소섬유를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새 재료중의 하나로, 탄소섬유생산을 우선적인 고도기술산업부문으로 정하고 제품개발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강소항과복합재료과학기술유한공사에서 T800탄소섬유의 관건적인 기술개발과 관련설비제조에 성공한데 이어 25t생산능력의 T800탄소섬유생산흐름선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국, 일본 등 나라들의 기술봉쇄를 허물고 중국의 항공우주, 국방공업 등 분야에서 긴급히 제기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나치즘을 미화분식하려는 시도 반대

로씨야가 최근 나치즘을 미화분식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말데 대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결의안을 벨라루씨,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우즈베끼스딴, 따쥐끼스딴, 수리아를 비롯한 40여개 나라가 공동으로 발기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부대표는 유엔총회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력사를 외곡할수 없으며 그것을 부인하거나 의의를 왜소화하는것은 모독이라고 말하였다.

최근에 1945년의 위대한 승리를 외곡하거나 재평가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나치즘의 범죄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우는것은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프랑스대통령 올랑드가 18일 이스라엘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정착촌건설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야만 영구적인 팔레스티나국가가 창건될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반테로투쟁에서 협조 강조

케니아외무상 아미나 모하메드 지브릴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반테로투쟁에서 지역나라들이 협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국제적인 테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나라들이 정보교환, 군사훈련 등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기치아래 단결할것을 호소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 레나뚜 라벨루가 최근 국제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정당들이 사회주의기치아래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과 현 국제정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오늘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제자주적인 나라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한 책동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내정간섭에서 찾고있다고 까밝혔다.

자주,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셔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자연피해

－웰남의 중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17일현재 2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8만명이상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남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며칠동안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났다. 무더기비로 17일현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현지에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미국의 일리노이스, 인디아나, 켄터키주들에 17일 강한 회오리바람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5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18일 회오리바람이 휩쓸어 피해가 났다.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지붕이 벗겨져 날아나는 등 건물들이 파손되였다.

또한 사람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살인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7일과 8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베들레헴과 나블루스시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무고한 팔레스티나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용기 추락

미국의 뉴욕주에서 12일 공군소속 군용기가 추락하였다.

군용기는 비행훈련도중 온타리오호에 처박혀 박산이 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알콜금지조치를 강화하고있는 로씨야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가 로씨야국가회의에서 엄격한 알콜금지관련법안작성을 계획하고있으며 앞으로 알콜금지와 관련한 가혹한 법안이 작성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총체적인 알콜금지조치가 취해질것으로 예상되며 법조항에는 알콜선전금지조치강화 및 아동알콜섭취처벌안(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벌금징수) 등이 포함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있다.

특히 21살미만의 청년들에게 알콜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심의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로씨야에서 18살미만에게 알콜, 담배구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으나 이와 같은 금지조치가 아직 응당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알콜람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그것은 알콜람용에 의한 피해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심각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로씨야에서 알콜의 지나친 섭취로 인한 인구통계학적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되였다.

로씨야주민들의 때이른 사망률은 매우 높은데 이것은 나라의 인구통계학적인 위기를 발생시키며 평균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첨예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로씨야에서 사망자의 3분의 1이 알콜람용과 관련된다고 한다. 여러 지방들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알콜람용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7%를 차지한다.

이것은 로씨야주민들의 평균수명을 낮추는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다. 알콜람용으로 인하여 나라의 출생률이 심히 떨어지고 어린이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것은 물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로씨야소비감독기관의 견해에 의하면 현재 로씨야에서는 알콜람용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한다.

또한 알콜람용으로 인한 범죄건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피해를 가시기 위해 로씨야정부는 2020년경에 알콜람용을 끝장낼것을 계획하고있다.

2012년에 로씨야국가회의에서는 맥주를 비롯한 일체 알콜제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시키는 법을 채택하였다.

로씨야정부는 또한 인터네트상에서 알콜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채택을 검토하고있다.

모든 종류의 술과 알콜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술판매량을 줄이는 조치가 강하게 취해졌으며 술판매를 금지시키는 지역이 늘어나고있다.

또한 알콜판매량을 신고하는 체계와 그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 하여 로씨야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로씨야철도역들과 그와 린접한 구역들에서는 련방법에 따라 알콜음료를 팔지 않고있다.

한편 로씨야항공운수부문에서도 알콜제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는 2010년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것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어기였을 때 적용할 벌금액수를 규정하였다.

알콜람용을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로씨야주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특히 미성년들에게 알콜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주민들은 물론 술을 마시는 주민들도 적극 지지하고있다.

알콜람용을 막기 위해 로씨야에서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올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박 춘 식

세계상식

마술경기

마술경기는 말을 타고 제정된 시간에 여러가지 동작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얻은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 체육종목이다.

마술경기라는 개념에는 말자체의 체력과 운동능력의 발단수준, 기수의 체력과 의지력, 말과 기수와의 호상협조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말은 지난 시기 민간에서는 수송수단, 통신수단으로, 군사분야에서는 위력한 전쟁수단으로 리용되였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말타기가 중요한 경기종목으로 되였다. 중세 후반기에 와서 말을 길들이고 잘 타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방법이 연구되였으며 이 시기부터 실용마술에서 갈라진 전문마술경기가 발전하게 되였다. 문예부흥시기 이딸리아사람이 처음으로 승마법에 대하여 쓴 책이 유럽의 승마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나뽈리에 승마학교가 생기면서 유럽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승마학교에 다닌 프랑스사람이 마술에 대한 책을 써냈다. 이때부터 근대마술의 주도권은 이딸리아로부터 프랑스에로 넘어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승마는 일반대중의 오락의 한 종목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귀족, 유산자, 군인뿐아니라 일반사람들가운데서도 승마를 즐기는 기운이 높아졌으며 점차 애호가들속에서 경기에 대한 흥미를 자아내게 되였다. 군대에서는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오던 장애물뛰여넘기가 각별한 흥미를 끌기 시작하였다. 마술은 제5차 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 정식 올림픽경기종목으로 되였다. 국제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1921년 11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8개 나라가 모여 국제마술련맹(략칭 FEI)을 창립하였으며 종합마술, 장애물뛰여넘기, 마장마술의 3개 종목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마술경기를 국제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마술련맹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로는 올림픽경기대회, 장애물뛰여넘기세계선수권대회, 공식국제마술경기대회 등이 있다. 마술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제정된 승마용례복을 입고 장화를 신으며 모자를 쓴다.

본사기자

두번째 태양계 발견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두번째 태양계를 발견하였다.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7개인데 돌로 되여있는 작은 행성들은 천체에 가까이 접근해있고 가스로 되여있는 큰 행성들은 멀리 떨어져있다. 7개의 행성중 3개가 천체주위를 도는 주기는 각각 331일, 211일, 60일로서 지구와 금성, 수성이 태양주위를 도는 주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무인기공습을 반대하여 집회

규탄받는 정탐행위의 왕초

최근 미국의 전화도청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여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메히꼬의 전직 및 현직대통령들의 전자우편이 감시당하였다는 사실과 도이췰란드수상의 휴대전화 도청에 대해 전하였다.

사건발생후 도이췰란드수상은 미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정보기관의 전화도청행위는 량국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것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 하여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게 되였다. 지난 시기 두 나라의 관계는 별로 좋지 못하였다. 지난 6월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유럽나라들중 제일 예민하게 반발한 나라가 도이췰란드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빠난 미국은 과거 도청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채 오바마가 메르켈에게 현재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도이췰란드외무성은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을 곤경에로 몰아넣는 도청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메히꼬와 도이췰란드에 대한 전화도청문제가 가셔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영국신문 《가디언》이 미국가안전보장국에서 35명의 여러 국가급인물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의 정보기관요원이였던 스노우덴이 공개한 국가안전보장국의 내부기밀문건에 외국수뇌자 35명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많은 전화번호들이 기록되여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아직은 이 전화번호들에서 보고할만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고 전화도청행위를 시인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전화를 체계적으로 도청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미국을 다불러대기 시작하였다.

유럽동맹리사회 상임의장은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유럽동맹수뇌자회담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제기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도청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동맹내의 특별조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스웨리예수상도 동맹국지도자의 통화를 도청한다는것은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일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에스빠냐는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에스빠냐공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전화도청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유럽동맹내에서는 미국의 전화도청행위에 격분한 나머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협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왔다.

궁지에 몰리우고있는 미국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최근 미국가안전보장국은 전화도청관련보도를 부정하는데로 나아갔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미국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 공민들의 전화까지 도청하여 저들의 목적실현에 써먹으려 하였다는 사실자료들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지난 10월말 영국신문 《메일 온 썬데이》는 영국의 멘위스 힐에 있는 공군기지인 대규모전자도청쎈터에서 도이췰란드수상을 포함한 유럽의 주요나라 지도자들의 전화내용들을 도청하였다는 자료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은 메르켈과 기타 세계지도자들의 전화대화를 도청하기 위해 멘위스 힐에 있는 영국의 첩보기지를 리용하였다. 이 군사기지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화도청기지이다. 여기에는 33개의 우주탐지안테나가 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 전문가들은 여기서 도청한 개별적인물들과 관리들의 전화대화와 인터네트편지거래 등을 종합한다.》

이보다 앞서 에스빠냐신문 《엘 문도》는 스노우덴에게서 입수한 문서들중 하나를 인용하여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최근 1개월사이에 에스빠냐내에서 6000만건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다.

전화도청문제로 미행정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국내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정보계에서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벌린 정탐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모르고있었다고 한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35명의 세계 여러나라 국가급인물들의 전화를 도청할데 대한 지시는 백악관과 국무성에 의해 직접 내려졌다고 까밝혔다. 미국의 한 국회의원은 이런 전화도청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다는 대통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오바마의 말은 자국공민들의 전화도청을 부인했을 때와 꼭같다고 야유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위해서는 전화도청과 같은 부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인권유린의 왕초, 모략의 능수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향해 비발치는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은 천만번 응당하다.

본사기자 신 경 섭

ㄱ-3118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